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구 분	내 역					
출장자	소속	해양연구본부	성명	박영길	직급	연구위원
출장목적 (중복선택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행사 주최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행사 참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세미나, 교육, 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			
관련사업 (예산항목)	○ 출장목적 : 한-아세안 협력세미나 참석 및 발표 ○ 관련사업 - (수탁) 2024년 해양영토전문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(사업기간 : 2024.03.12. ~ 2024.11.30.)					
	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	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반영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장지 대체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(수탁)		
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	성명	보유 마일리지	활용계획		미활용 사유	
	박영길	106,753	미활용		주최 측 항공권 제공	
출장기간	2024.08.13(화) ~ 2023.08.15(금) (1박 3일)		출장지		말레이시아 (쿠알라룸푸르)	
출장일정	일자	방문지	주요업무*		항공편	
	08.13(화)	부산(10:45) → 인천(16:40) → 쿠알라룸푸르(21:50)	항공 이동		KE1414 KE0671	
	08.14(수)	쿠알라룸푸르 힐튼호텔	세미나 참석 및 발표			
	08.14(수) ~15(목)	쿠알라룸푸르(23:20) 인천(08:25) → 부산(09:35)	항공 이동		KE672 KE1407	
출장성과	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 -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한 한국의 해양활동 소개 및 한-아세안 협력에 기여 ○ 주요 성과 -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및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와의 협력관계 구축					
향후계획	○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와의 연구협력					
참고 등 특이사항 (건의사항)						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업무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행사 주최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행사 참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세미나, 교육, 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업무	08.14.(수) 오전
수행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미나 참석 및 발표 10:00~10:40 개회식 10:50~11:50 세미나 발표 - 사회: Sumathy Permal (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) 발표 1: 박영길(KMI), 주제: 동중국해 어업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발표 2: Jane Chan Git Yin(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관계대학) 발표 3: Aristyo Rizka Darmawan(호주국립대, tbc) 11:50~12:20 질의응답 12:20~13:45 오찬
수행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세미나 내용 ○ 참석자 - 한국 측: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사, 황준식 외교부 법률국장 등 - 말레이시아 등: Ashikin 말레이시아 외교부 해양실장, Saiful 말레이시아 해경청장, Jafri 말레이시아 총리실 연구국장 등 말레이시아 정부 주요 부처 인사들, 주 말레이시아 외국 대사관 직원들 ○ 기조연설: 황준식 외교부 법률국장 - 주요 국제적 해양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및 국제협력 현황 소개,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, EEZ 외국어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소개 - 한중일 3국의 해양권원 중첩문제와 경계획정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, 특히 한중 간에는 2015년 이후 공식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 중 - 해상법집행 문제는 해양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, 한국은 효과적인 법집행 요구와 법 준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 ○ 패널 발표: 박영길 - 중국어선의 서해 내 조업과 우리의 대응 중심 발표 -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 EEZ 조업에 대한 허용 어선 척수와 어획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옴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확보에 기여하였음 - 또한 상대국 EEZ의 허용 어선 척수와 어획량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형식적 균형을 맞춤 -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양국은 매년 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상대국 EEZ 내 조업 가능 척수를 매년 50척씩 줄여오고 있음 - 그러나, 양국 어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,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 어민의 강한 불만과 어업협정 개정 요구 원인이 됨 - 예컨대, 2023년 기준 중국 EEZ 내 실제 조업한 한국 어선은 183척으로 전체 할당량의 14.6%에 불과한 반면, 한국 EEZ 내 중국 어선은 1,114척으로 할당량의 89.1%에 달하며,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한국 어선의 실제 조업량은 최대허용어획량(TAC)의 6.5%에 불과했지만, 중국 어선의 조업량은 TAC의 74.3%에 달하였음

-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현황과 근절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노력에 대해 발표

○ Aristyo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

- 한국과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
- 한국은 신남방정책에 이어 인-태전략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해하며, 이러한 정책에는 아세안 주도의 메커니즘 존중을 기반으로 해양분야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
- 한국의 아세안과의 해양분야 협력에는 퇴역 함정의 아세안 국가 양도, 물자 공급, 대테러 및 해적행위 대응 훈련 참가, 수색구조 훈련 참가 등이 있음
- 한국이 인도네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여, 기술이전과 연합훈련 확대 등을지원하고 있음
-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에 한-아세안 협력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함

○ Lawrence 싱가포르 RSIS 선임연구원

- 아세안 역내 해양안보에 대해 발표
- 역내 해양안보는 당사국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한 사안이며, 해양안보 분야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 사이의 신뢰구축이 선결요건임
- 아세안 차원의 해양안보 관련 이슈는 크게 아세안 해양포럼(AMF) 및 확대 아세안 해양포럼(EAMF)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, 개방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두는 것이 바람직
- 역내 IUU 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중요한 사안이므로, 중국과 협상 중인 행동강령(COC)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

□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협력 등 기타 사항

- 말레이시아의 지정학적 위치 이해: 말레이시아는 미중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면서, 주변국들에 비해 중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
-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가진 국제정치 중립적 성향, 아세안 내 발달된 교통물류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말레이시아를 아세안 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(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누산타라)이 가시화되면서, 보르네오섬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인도와의 국경 및 해양경계와 관련한 안보 및 관할권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

*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(관련 사진, 도표 필요시 추가)

*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(필요시 조정)

□ 출장 관련 사진

